

###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①

### 주부신행담

非僧非俗의 중도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나는 종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시칠 풍 물놀이에서 심취해서 우리나라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종풍은 주박들었던 절음을 싹싹 풀어주는 신명이 있어 좋다. 절은 시절 걸잡을 수 없어 굶는 마음을 가졌던 나는 종풍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시대에 저항하던 시절에 자칫 잘못하면 버림받은 '어둠의 자식'이 될 뻔했었거나, 병이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종풍은 내 마음을 크게 열어주었다. 신명

#### 신명과 그늘 함께있는 중도의 세계 찾고싶어

는 힘이 있다. 확대된 자아의 세계로 바깥 세상을 보면 그 안에 더 큰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그 속에 이웃이 있고 민족이 있고 자연이 있고 우주가 있다. 확대된 자아로서 넓고 깊은 세계관에 다다른 방편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 이곳 산골은 공허가 없어 좋다. 마치 산사처럼 청정하다. 텔레비전의 광고를 안 보아서 좋고, 거리에 낯뜨거운 젊은 여자의 다리춤을 안보아서 좋고, 시끄러운 소음 같은 음악들, 메스꺼운 향수

내음, 자동차 매연, 신문 잡자들 안 뒤적거리려서 좋다. 종풍에만 신명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주인들이 모두 재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차오르다 스러져 간다. 젊은 시절 차오르는 신명에게 불두했다면 이제 스러져가는데, 신명과 그늘이 함께 있는 넓고 깊은 세계, 불교에서 이르는 중도의 세계를 찾고 싶다. 아, 험한 길, 제대로 살아가기

엔 너무 박한 인생 길이다. 가다가도 끝이 안보이는 예도는

의 길이다. 산 속에서 눈발앞에

집짓는 일을 하는 날은 차라리 행복하다. 밥 잘 먹고 톱 잘 싸고, 잠 잘오는 날이면 어느새 내 생업이 되어버린 그림자가 맑은 줄타기 공대같다. 발 한번 빠곳에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차라리 밥만 벌어 속세의 행복을 즐기면서 살거나, 주는 밥 먹어가며 도란 닦으려면 좋을텐데... 非僧非俗의 중도 김봉준 <동양화가>

결혼생활 16년은 내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해 그 지난 날들을 살펴보고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부처님과 스승님전에 고하고 그 부분들을 스스로 "복"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부란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 존중

#### "아가씨 불교를 아세요" 기차에서 낯선 남자가 물은 말이 인연...

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척척 들어주는 행복한 결합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드 한쪽이 마음을 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들어주는 역할만 제대로 하더라도 그런대로 무난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고는 있으나 참으로 실천이 되지 않더군요.

결혼생활 시작하여 첫 딸아이 백일 될 무렵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은 몸도 마음도 몹시 힘이 들었나 봐요. 처음부터 우리 부부는 빈혈터리로 서로가 사랑을 알고 만나서 인생을 한번 개척해보자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가 어느날 교회의 장로님



7/21/17

리교 배낭 하나 둘러메고 해변에서 쉬고 있는데 부부까지 갔다가 부부 부곡중에 있는 석림사라는 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은 마당을 넓히고 탑을 쌓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서울로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산에서 의사실에서 다니면서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며 아는 사람이 하는 계에 들었다가 계가 깨지는 바람에 그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래 법사사 법천사라는 사찰에서 맑은 공기와 물로 건강을 회복하고 양산 풍도사에서 김한대 스님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부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되

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 인사 올리며 의사실에서 다시 일한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가려진 시집이나 빨리 가져라"하며 웃으셨습니다. 의사실에서 돌아와 일을 하던 어느날 사촌언니 집에 다녀야 하려고 열차를 탔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가씨 불교에 대해서 아세요?" 이 말의 이야기 끝에 저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불교에기로 만난 우리는

#### 농번기엔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기둥에 묶어두고 나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곧바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들 걱정이 많았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살림살이에 9남매의 차남인 남편과 비록 결혼식은 못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아이를 가져서 입맛이 심했지만 경황도 없는 농사일 집안일을 해야하는 나날들이라 늘 바쁜 일

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Without covetousness, without deceit, without craving, without defraction, having got rid of passions and folly, being free from desire in all the wor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논쟁의 철학적 견해를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여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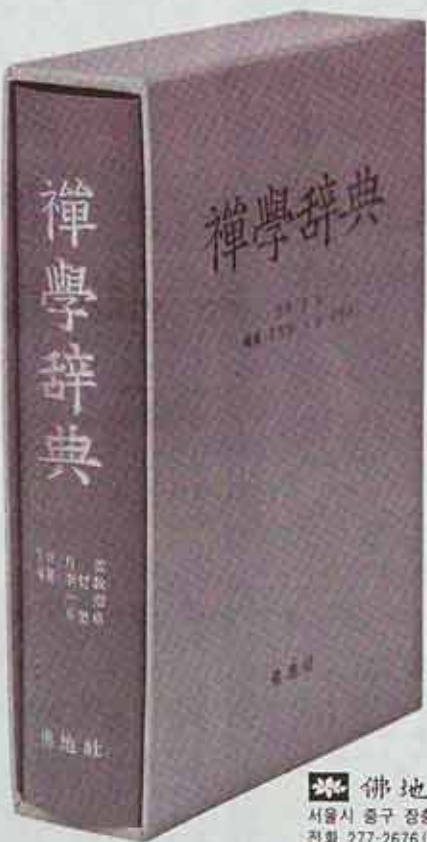
탐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며, 혼탁과 미망을 남기지 마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숙타니파타 12** 김없이 잊어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코뿔소처럼 혼자

는 그런 나쁜 벗과는 가까이 말라. 감각적인 탐욕만을 일삼는 그런 벗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subdu 이기다. 정복하다. \*covetousness 탐욕 \*crave 갈망, 열망하다 \*self-command 자제력, 국기 한명우 기자

8년만에 편찬직업 회향... 선어·공안·인명·지명·서명·사원명 등 9,100여 표제어 수록

# 禪學辭典

##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 (대) 팩스 278-9118

####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소속종파·속성·법호·출신지·사승·수행경력·가풍·저술·시호·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기본·사본·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분담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처와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 특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달·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언표 ▲선종법제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 부록

1. 선종사언표: 국내·국외(인도·중국·일본)순으로 선가의 주요 사실 등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제도: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중국·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태고·보우·이재·창해·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어림과 사원 명칭을 인도·중국·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선종과 관련된 경·율·론의 주요 권적과 선종 문헌을 나라·종파·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국내외의 선학사건 및 일반 불교사전·연표·인명사전·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 감수

필운 스님 불교학자 회주 / 한·일·중국대 역경한 원장 "견에 두고 살펴보니, 낯익은 선경 연대 출처 고증 내지 못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실로 주옥같다는 말로 표현할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 편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임지 / 해인사 강원도 윤현 동법 · 주국사  
신규택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 중국대학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 출판기념회

· 일시: 1995. 10. 6(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서울로 쌍용빌딩 18층 (270-5201)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277-2676)